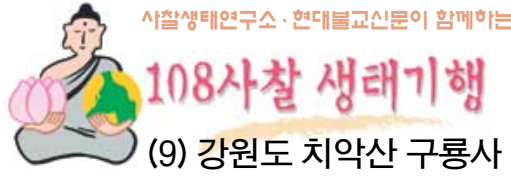


무소유의 잣빛 숲

남방계 식물과
북방계 식물이 겹치는 곳
다양한 종 나타나



시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애기행

(9) 강원도 치악산 구룡사

치악산 구룡사의 겨울 하늘은 변화무쌍한 자연을 통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천만가지 소리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전한다. 하늘은 앙상한 겨울숲으로 내려와 나무와 나무 사이를 거닐며, 나무 줄기와 가지들 스치는 바람소리로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다. 다만 귀 열린 지만이 고개를 끄덕일 것인데... 숲은 겨울에 이르러서야 내밀한 자신의 속내를 보여준다. 동안거(冬安)로 앉아있는 치악산 구룡사의 겨울숲은 단식을 끝낸 사람처럼 거칠고 야위었지만, 오히려 내면은 고요하고 평화롭다.

치악산(1,288m)은 백두대간이 오대산에서 남서쪽으로 갈라진 차령산맥 한가운데 우뚝 솟은 산이다. 주봉인 비로봉을 중심으로 북남 방향으로 매화봉-천지봉-비로봉-향로봉-남대봉으로 산줄기가 흐르고 있다. 남북 주능선을 경계로 해 서쪽은 경사가 급하고, 동쪽은 부드럽다. 서쪽 골짜기 물들은 섬강을 만들고, 동쪽 골짜기 물들은 주천강으로 흘러든다. 주자장에서 내리면 겨울인데도 상큼한 금강송 솔내음이 얼굴을 확 덮친다. 원주 치악산을 비롯해 영월 사자산, 정선 가리왕산, 삼척 두타산을 잇는 지역의 소나무들은 거의가 금강송 소나무[金剛松]이다.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많이 베어지고, '뫄탄 숲이 선산을 지킨다'는 속담처럼 지금의 숲들은 열성유전된 것들만 남아있다.

매표소에서 구룡교-구룡사-세림폭포-사다리비창으로 이어지는 구룡계곡은 탐방객들의 잦은 발걸음에도 불구하고 생태계가 비교적 튼실하다. 구룡계곡에는 곳곳에 크고 작은 소가 있다. 이 소들은 계곡의 민물고기들이 겨울을 나는 생명의 아지트이다. 물은 깊을수록 따뜻하다. 그래서 겨울이면 물고기들이 소에 모여 겨울을 난다. 구룡사 숲길은 유감스럽게도 보도블록 길이다. 이 숲길은 낙엽 지는 떨기나무와 늘푸른나무들이 섞여 있는 호호림이다. 떨기나무 숲은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늘푸른 숲보다 회화적(繪畫的)이다. 신록의 숲을 부드러운 수채화로 비유한다면, 단풍숲은 현란한 유화에 비유될 것이다.

또, 잎을 떨근 허허로운 겨울숲은 흑백으로 드러내는 우리의 수록화에 비견될 수 있을 것이다. 떨기나무 가운데 특히 신나무는 옛 스님들과 인연이 깊은 나무이다. 예전에 스님들이 신나무 앞에서 잣빛 물감을 얻어 승복을 물들이곤 했다. 잣빛은 모든 것을 놓아버린 자재원웅의 색이요, 무소유의 색이다. 잣빛은 사된 것을 허허로이 떨근 겨울숲의 색을 그대로 닮아있다.

겨울철이라 곤충들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성충으로 월동하는 네발나비, 청피신선나비, 작은멋쟁이나비, 실잠자리, 등검은쌍살벌 등은 바위틈이나 어디엔가 숨어 있을 것이다. 겨울동안 이들은 몸 속의 체액을 자동차의 부동액처럼 바꾼다. 열정과 욕망의 뜨거운 피를 냉정과 탈속의 차가운 피로 바꾸고 서야 동안거에 드는 것이다.

허허로이 잎을 떨근 숲 사이로 새들의 지저귀음이 감미롭다. 마칩 오색딱따구리 한 마리가 따발총 쏘듯 나무를 쪼아대고 있다. 구룡사 숲은 딱따구리 숲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다양한 딱따구리들이 살고 있다. 까딱따구리, 큰오색딱따구리, 청딱따구리, 쇠딱따구리... 모두가 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보금자리를 만

든다. 딱따구리들의 구멍집은 가끔 다른 새들도 들어와 세를 산다. 심지어는 청솔모와 다람쥐까지도 제 집처럼 드나든다. 이렇듯 딱따구리처럼 생물 간의 상호작용과 생물다양성 유지에 도움을 주는 종을 키스톤종(Keystones Species)이라고 한다.

일주문인 원통문을 지나면 오른쪽으로 국사단이 앉아있다. '國師'가 아니라 '局司'이다. 국사신앙은 전통불교 신앙이 아니라 습합된 전통 민간신앙의 하나이다. 국사는 형국(形局)을 주관하는 지신(地神)이다. 국사는 치악산의 산지기요, 구룡사의 숲지기 신인 셈이다. 국사당 뒷쪽 조릿대들이 낮은포복으로 산기슭을 기어오르고 있다. 조릿대는 다른 나무들의 잎새가 무성한 여름날에는 햇볕을 못 받아 건강이 좋지 못하지만, 다른 나무들이 있을 땐 곧 다음이면 제 모습을 드러낸다.

사천왕문 주변에 늘어선 잣나무는 본래 북방의 나무로, 치악산이 남방한계선이다. 만주와 일본에도 자생하고 있지만, 일찍이 우리 잣나무를 최고로 쳤다. 중국에서는 신라송이라 했고, 서구에서는 지금도 '한국소나무'라고 부른다. 구룡사 보광루는 옛스런 맛이 더 깊은 전각이다. 다듬지 않은 자연목 기둥, 그 기둥을 받치고 있는 막돌 그랭이, 흙을 치지 않은 판벽, 채광과 통풍을 위한 살창 등등은 보광루가 생태건축물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대웅전이나 얼마 전에 불사를 마친 천불전, 심검당보다 품작이 높은 전각이다.

새로 지은 심검당 아래 보호수로 지정된 은행나무 한 그루가 있다. 보호수들은 저마다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있다. 이 은행나무는 주민등록번호가 '강원-원주-38'이다. 구룡사 주변 숲에는 박새류들이 많다. 박새, 쇠박새, 진박새, 곤줄박이, 북방쇠박새... 그리고 박새와 딱따구리의 중간쯤 되는 동고비까지. 박새류들은 산새 가운데 사람들과 가장 친숙한 새이다. 새들은 곤충을 즐겨 잡아먹다가 배고픈 겨울이 되면 식물성으로 바뀐다. 곤줄박이는 가슴이 붉어서 다른 박새들과 쉽게 구별된다. 머리와 뺨에 나 있는 연노란색 줄도 예쁘다.무엇보다 귀여운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까이 접근해오는 친밀감이다.

구룡사에서 대곡아영장까지는 걷기에 딱 좋은 부드러운 흙길이다. 눈맛 좋은 금강송들이 개울 건너에 숲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큰 나무 아래 송긱긱 솟아나야 할 어린 솔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걸 보면 치악산의 금강송도 저 숲이 마지막일 것이다. 그 아영장 숲을 왼쪽으로 끼고 돌면 아까 지나온 국사단에 이르는 또다른 산길이 이어진다. 인적이 드물어 더욱 호젓한 명상의 숲길이다. 20-30년생 젊은 전나무 숲이 있어서 삼림육화기에도 좋은 산길이다. 대곡아영장에서 세림폭포까지는 1킬로미터 남짓하다. 위로 올라갈수록 소나무보다 활엽수들이 더 많아진다. 치악산은 남방계 식물과 북방계 식물이 겹치는 곳으로, 비교적 종이 다양하게 나타난다.그 가운데 윗나무는 치악산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나무이다. 윗을 얻기 위해 신라 때 중국으로부터 들여와 치악산 주변에 맨 먼저 심었다. 그래서 원주지역은 지금까지도 윗길공예가 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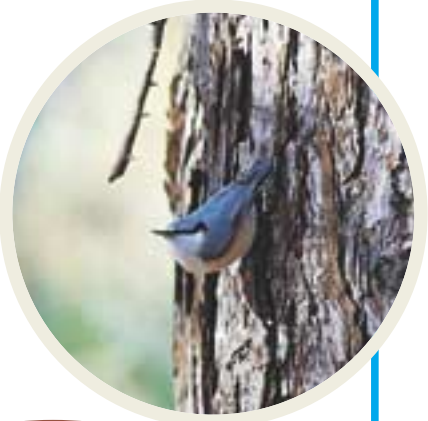
세림폭포에 이르는 구간에서는 졸참나무와 신갈나무들 군락이 심심찮게 관찰된다. 참나무끼리도 서로 보이지 않는 경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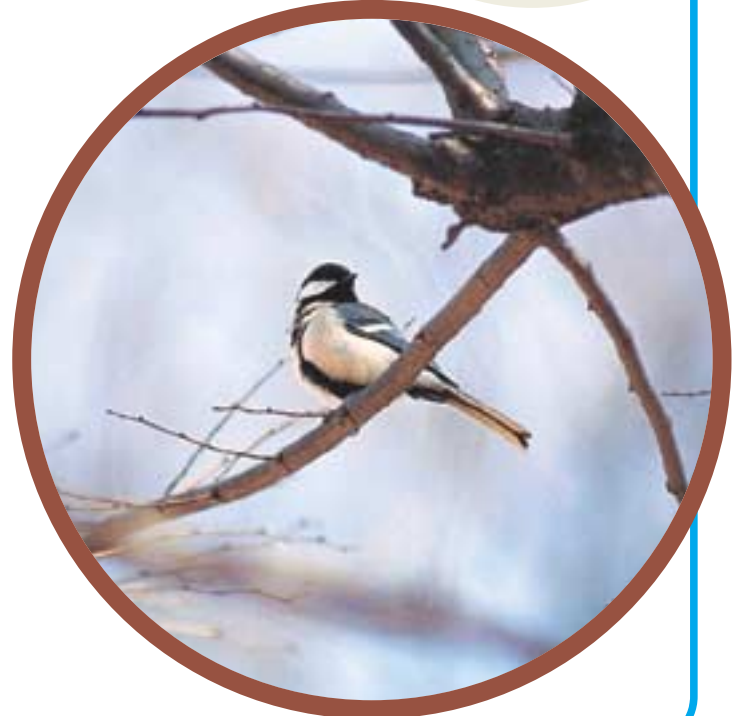
◇이호신작 '구룡사일주문' (48×32)1996년.

한다. 대개 갈참나무 → 떡갈나무 → 졸참나무로 숲의 천이가가 이루어진다. 가파른 경사면에 졸참나무, 신갈나무, 층층나무, 까치박달나무, 서어나무, 당단풍나무, 고로쇠나무, 들메나무, 박달나무, 까치박달나무, 말박달나무 등이 아예 얼음이 된 흰 눈을 온몸에 뒤집어쓴 채 겨울을 참고 있다. 나무들의 겨울나기는 스스로 잎을 떨구는 자기 구조조정을 거쳐서 줄기를 지상에 그대로 둔 채 의연히 견디어낸다. 잎을 떨구어내지 않으면 그 수많은 잎을 다 먹여살려야 하는 고통에 시달린다. 식물들의 겨울잠은 기온이 차고 물이 부족한 시련의 겨울을 나기 위한 방편이다.

글 · 사진 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구룡사 주변 숲에서는 동고비(오른쪽)와 박새(아래).



◇치악산을 지키고 있는 '금강송'.